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한동진 의원, 유인에 의원,
김영준 의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1일 열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수, 한동진, 김영준, 유인에, 강선경 의원 총5명이 선임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최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문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강선경 의원이 각각 선임돼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00억 원으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북구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97억 원, 특

별회계 103억 원으로 총 4,100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93%가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2014년도에 4,100억 원의 예산 중 강북구민들 다수가 원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안을 더욱 존중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결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장하는 안을 예결

위원장으로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선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박문수 위원장과 함께 소통함에 힘써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들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북신문 5면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문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 선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5년도 사업예산안 9일부터 심사 시작하기로

강북구의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문수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강선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에 나서 이같이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수·한동진·김영준·유인에·강선경 의원 총5명이 선임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최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

에 박문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강선경 의원이 각각 선임돼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강북구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97억 원, 특별회계 103억 원으로 총 4,100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1.93%가 증액된 금액이다. 이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2014년도에 4,100억 원의 예산 중 진정 강북구민들 다수가 원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안을 더욱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예결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장하는 안을 예결위원장으로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문수 의원, 부위원장 강선경 의원 각각 선출



박문수 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

강북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수, 한동진, 김영준, 유인

애, 강선경 의원 총5명이 선임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최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문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강선경 의원이 각각 선임돼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00억원으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2014년도에 4,100억원의 예산 중 진정 강북구민들 다수가 원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안을 더욱 존중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결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장하는 안을 예결위원장으로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북구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97억원, 특별회계 103억원으로 총 4,100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1.93%가 증액된 금액이다.

강북·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마쳐

9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마친 예산안 두고 종합심사 개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빠듯한 살림살이 꼭 필요한 곳 쓰이는데 중점 뒤



▲ 강북구 박문수 예결위원장, 강선경 부위원장



▲ 도봉구 박진식 예결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



도봉구의회와 강북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과 예결위원장 선임까지 마치며 내년도 살림살이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강북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구성했다.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문수, 한동진, 김영준, 유인애, 강선경 의원 5명이 선임됐다. 예결위원장으로 박문수 의원이, 부위원장은 강선경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2014년도에 4,100억 원의 예산 중 진정 강북구민들 다수가 원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안을 더욱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또 예결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장하는 안을 예결위원장으로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며 심사 기준을 밝혔다.

부위원장인 강선경 의원은 "박문수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부족한 예산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997억 원, 특별회계 103억 원으로 총 4,1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3%가 증액됐다.

이에 앞서 도봉구의회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구성을 마쳤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박진식, 이경숙, 이근욱, 이태용, 홍국표, 이성희, 차명자 의원이 활동하게 되며 위원장은 박진식 의원이, 부위원장은 이경숙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박진식 위원장은 "자치구 예산이 복지사업 확대 및 의무지출로 매년 더욱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부위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박진식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원활한 예결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는 9일 제2차 예결특위를 열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해 각 국별로 심사를 마친 후 15일에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다.

도봉구의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11억 원(12.4%) 증가한 3,731억 원 규모. 일반회계 3,658억 원(전년도 3,266억 원)과 전년 대비 34.3% 증가한 특별회계 73억 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62억 원)을 편성했다.